

ACC ‘아시아의 장치들’전…누적 관람객 10만명 돌파

쇼실험영화·비디오아트 흐름 조망…‘N차 관람’ 견인
타 지역 관람객 51.2% 비중 차지…매력적 콘텐츠 각인
고영진·이윤지·고세은 가족에 전시 굿즈·영화표 증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복합전시 2관에서 다음달 27일까지 선보이는 ‘ACC 필름앤비디오-아시아의 장치들’ 전시가 지난 9일 기준 누적 관람객 10만9명을 기록했다.

‘아시아의 장치들’은 ACC가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제작해 온 아시아 실험영화와 비디오아트 작품, 신작 등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전시다. 영화와 미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동시대 예술의 흐름을 살펴보고, 아시아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영상 매체가 어떻게 실험되고 확장되는지 보여준다.

전시에는 31인(팀)의 작품 64점과 19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참여한 포스터 디자인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복합전시 2관 내부에 조성된 3층 규모의 원형 구조물 전체를 활용해 작품을 배치한 독창적인 전시 구성이 관람객의 호응을 이끌었다.

전시장을 따라 이동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영상적 경험이 되도록 구성해 한번의 관람만으로는 작품과 공간을 충분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 전시 관람객 사이에서는 ‘N차 관람이 필요한 전시’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시를 다시 찾는 재관람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관람객이 찾아오는 문화예술 콘텐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CC는 전시 기간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율형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일까지 총 1173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람객이 51.2% (601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의 장치들’ 전시가 전남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문화에



10만 번째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고영진씨 가족에게 전시 굿즈와 영화표를 전달하고 있다.

술 관람객에게도 매력적인 전시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CC는 타지역 관람객의 방문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아시아 실험영화의 역사를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과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미공개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한옥의 감독의 ‘세 개의 거울’, 차학경 감독의 ‘몽골에서 온 하얀 먼지’ 등 그동안 일반 관람객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작가들의 실험적 영상 작품을 한자리에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이외에 이번 전시는 영국의 국제 현대미술 전문지 아트리뷰(ArtReview)가 선정한 ‘7월에 꼭 봐야 할 전시’로 소개되며 국내외 미술계에서도 주목받았다. 아시아의 실험영화와 비디오아트를 동시대 미술의 맥락에서 조망하는 전시의 기획 의도가 국제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에 ACC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토대가 된 필

름앤비디오 아카이브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시아의 실험영화와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수집·복원하고, 그동안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각 지역의 영화 운동과 활동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를 통해 영상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 상영, 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연결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ACC는 이번 전시에 보내준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지난 9일 오후 전시장을 찾은 10만 번째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10만 번째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고영진·이윤지·고세은 가족에게는 ‘아시아의 장치들’ 관련 전시 굿즈와 함께 전시 참여팀인 광주극장의 영화표 10매를 증정했다.

고영진씨는 “특별한 이벤트의 주인공이 돼 매우 기쁘다”면서 “다양한 전시를 통해 문화적 식견을 넓힐 수 있어 평소 가족과 함께 ACC를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된 전시 역시 몹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상욱 전당장은 “올해 ACC에서 개최한 전시 ‘아시아의 장치들’이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전시가 많은 시민들이 아시아 실험영화와 비디오아트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고, 영상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CC는 이번 ‘아시아의 장치들’을 비롯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10만 관람객을 넘어선 전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아시아 문화예술 콘텐츠의 저변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22년 통합 전당 이후 누적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한 ACC 전시는 ‘사유의 정원, 상상너머를 거닐다’, ‘ACC 미래상: 김아영-틸리버리 덴서의 선: 인버스 등 총 10건 등이다. 특히 ‘디어 바비노냐: 해방도시 속 혼란문화’와 ‘이름 지음-도시의 경관: 연결과 공존’ 전시는 누적 관람객 20만명을 넘어섰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복합전시 2관에서 선보인 ‘ACC 필름앤비디오-아시아의 장치들’ 전시가 지난 9일 기준 누적 관람객 10만9명을 기록했다.

사진제공=ACC

대구 간 광주 청년작가들 “미술 생기” 불어넣다

예술공간 집이 광주의 미술 생태계를 확장하고, 광주 작가의 타 지역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미술 생태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시가 대구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 예술공간 집(대표 문희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2026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하나로 선정돼 마련된 전시가 지난 5일 개막, 오는 16일까지 대구의 중심인 중구 변화 거리에 위치한 봉산문화회관에서 ‘우리 없는 세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출품작은 참여작가 12명의 회화, 설치, 미디어, 조각 등 총 34점.

양초롱 독립기획자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광주 동구에서 9년째 갤러리를 운영해 오고 있는 예술공간 집의 첫 외출로 열려 의미를 더한다.

전시는 ‘나’라는 존재와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에서 출발해 생명의 본질, 삶과 죽음, 도시 문제, 과학적 유토피아, 기후 변화, 중 치별 같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조망한다. ‘우리 없는 세계’에서 말하는 ‘우리’는 단순히 인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나’, 그 ‘나’가 몸담은 환경, 불안정한 생태계,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인 생물들, 더 나아가 세계의 통념과 법칙에서 벗어난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참여작가로는 강민영, 김철아, 박아론, 박우인, 송미경, 신준민, 심은석, 안효찬, 윤준영, 임용현, 정덕용, 채은 등이며, 2000년생 청년 작가부터 중견 작가까지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됐지만 모든 것이 혼재돼 있다. 섹션 1의 ‘이곳은 나의 고향이 아니다’는 강민영, 김철아, 신준민, 윤준영씨의 작품이 선보이며, 섹션 2의 ‘우리란 존재’는 박우인, 송미경, 정덕용, 채은씨의 작품이 해당되고, 섹션 3의 ‘이 행성 속에서는’은 박아론, 심은석, 안효찬, 임용현씨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 섹션들은 세상이 제각각하는 피상적인 위안이나 안락함의 틀을 넘어 ‘터



박우인 작 ‘길들이기’

광주 예술공간 집, 개관 9년만에 첫 외출 작품전

16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12명 작가 34점 출품

“예술의 사회적 담론…지속 가능 네트워크” 탐색

전’의 본질을 꿰뚫고자 하는 깊은 성찰로부터, 세계에 흔적을 남기는 여러 존재 중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세계까지, ‘이 행성 속에서’ 지구의 위기 앞에서 예술이 마주하는 세계를 생각하게 한다.

작가들이 보여주는 시선은 ‘지구’라는 행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주는 한편, 이 전시를 계기로, 광주와 대구 간의 단순한 전시 교류를 넘어, 두 지역의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연대를 활성화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시를 주최한 예술공간 집 문희영 대표는 “광

주 미술인들이 지역을 넘어 활동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광주 미술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작가들의 창작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시가 두 지역의 미술생태계에도 활발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 전시를 기획한 양초롱 독립기획자는 “그간 두 지역의 예술 현장을 들여다보며, 이번 전시가 예술의 사회적 담론을 확산하고 기획자, 작가, 연구자들간의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AI 관심있는 성인들 ‘교육 안내자’ 양성

광주과학관, 26일부터 초급과정 운영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2026년도 인공지능(AI) 리온지 거점 운영(전라·제주권) 사업으로 지역 AI 교육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 AI 세르파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AI 세르파는 등반가의 길을 안내하는 세르파처럼 시민들이 생성형 AI를 쉽고 안전하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AI 활용 길잡이를 의미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갖춘 AI 세르파를 양성해 지역 AI 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의 AI 문해력과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은 초급(베이직 세르파), 중급(프로 세르파), 고급(마스터 세르파) 등 3단계 과정으로 운영된다. 생성형 AI 기초 활용부터 AI 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교육 개발, 모의강의까지 단계별 실



습 중심 교육을 통해 100명의 AI 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초급과정은 AI 교육에 관심 있는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되며, 중급과 고급 과정은 단계별 교육 이수자와 AI 관련 전공자 및 실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단계별 수료자에게는 국립광주과학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아빠와 아이의 행복한 순간을 찾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14일부터 사진 공모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 오미란)은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남성 양육자의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키움 사진 공모전-너의 웃음이 나의 하루가 될 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아동을 둔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성이 단순히 육아를 돕는 역할을 넘어 아이와 깊이 교감하는 ‘주도적인 돌봄의 주제’로 거듭나도록 돕고, 지역사회 전반에 양성평등한 맞벌이 및 출산·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소셜미디어(SNS) 기반의 양방향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육아 부담과 정서적 피로를 겪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제공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9월 4일까지다.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하는 사진 1장과 제목, 간단한 설명을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 제출하면 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